

# 노인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umer Problems of the Elderly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조교 이 성 립  
교수 이 기 춘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 Lee Seong Lim

Professor : Rhee Kee Choon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derly consumer problems raised from the process of satisfying one's own consumer need(consumer expenditure problem) and purchasing goods and services in the market(purchase problem).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data from 256 elderly persons aged 60 or more was collected. To analyze the data, following statistical methods were used:ANOVA,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consumer expenditure problem is below the mid-point of the scale, while the average of the purchase problem in the market is above the mid-point. 2) The levels of consumer expenditure and purchase problems differ due to consumer role performance, family solidarity, spause, educational level, discretionary expenditure, income stability and source of income 3) Family solidarity, educational level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 have strong independent influencees on consumer problems both in consumer expenditure and purchase in order named.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소비자란 일반국민을 소비생활의 측면

에서 포착한 개념으로서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아직까지 노인은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우리사회의 소외된 소비자, 잊혀진 소비자라 할 수 있다. Drayton & Tyran(1988)은 노인소비자가 간과

되고 있는 이유는 노인소비자의 구매력이 한정되어 있고 시장에서 무력하며, 이들에 대한 소비자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편견에 기인한다고 보고, 노인소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노인을 소비자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노인복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에서 노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며 경제적인 문제가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많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은 1930년대 이전에 출생하여 해방전 일제 식민지생활을 경험했고 경제개발 이전의 6.25동란, 4.19혁명, 5.16으로 이어지는 혼란과 빈곤의 시대에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자녀들의 교육적 투자에 주력하느라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의식이 싹트기 이전 세대로서 적절한 경제적 대비를 하지 못한 데다가 이들이 노인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전통적인 자녀의 부모양양의식이 약화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대 경제 및 시장 양상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어서 노인에게는 호의적이 되지 못하며, 노인들 자신도 대량생산, 대량판매로 특징되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요구되는 소비자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은 은퇴로 인한 경제력의 상실로 소비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고, 낮은 구매력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 지식의 진부화, 심리적 불안정, 고독감, 신체적 노쇠 등은 노인소비자를 약하게 하는 조건들로서 시장에서의 지위가 미약한 취약소비자이므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소비자를 보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Waddle(1975), Lumpkin(1984), Mason & Bearden(1979), 이기춘(1988)의 제언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비자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문제라 하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문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김경자,1986;김성숙,1989;성지미·문숙재,1988;계선자,1988)를 보면 그러한 소비자문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소비의 목적은 소비자만족의 극대화에 있고 소비자만족은 시장구매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양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Andreasen(1976) 역시 소비자문제는 자원의 부족과 관련된 예산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장구매와 관련된 구매의사결정의 양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경제력의 상실, 심·신의 약화, 의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소비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소비자문제로서 종래처럼 시장구매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자원의 희소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소비지출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 소비자문제를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출 범주에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문제와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구매문제의 양 측면에서 그 정도와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소비자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오늘날 복잡한 시장매카니즘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전반에 우리사회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소비구성원으로서 노인소비자의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소비자문제

일반적으로 노인소비자는 자신들의 절박한 욕구,

빈약한 자원,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소비자'로 인식된다(이기춘, 1988). 따라서 노인소비자에게는 다른 연령 집단의 소비자보다 보호의 요구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Lancaster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된다. 하나는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제품의 특성군(Characteristics)을 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합을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김경자, 1986). Andreasen(1976)은 전자를 예산의사결정이라 하고, 후자를 구매의사결정이라 하며 이로부터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김성숙, 1989; 성지마·문숙재, 1988; 김경자, 1986 재인용).

한 가계의 생활표준은 소득의 크기와 소득이 소비되는 방법의 함수이기 때문에(Schnapper, 1967) 소비자문제는 소득문제와 소비문제의 두 측면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윤정혜, 1986). 따라서 소비자문제는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반적 소비범주에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소비지출문제와 각 소비범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구매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개념들에 따른 노인의 소비자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인소비자의 특성가운데 하나가 소득의 상실 내지는 감소이며 일반적으로 노인은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영하(1975), 임종권(1983),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76),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은퇴이후에는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은퇴이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노인소비자의 소비패턴에 그대로 반영된다(Moschis, 1987). 소비지출면에서 노인소비자문제를 분석한 연구(Moschis, 1987; Waddell, 1975; Burton·Hennon, 1980; Clark, 1985; Fareed et al, 1982)를 보면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본적인 소비욕구를 반영하는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가구, 의복, 개

인용품, 오락, 교육, 휴가를 위한 지출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퇴에 따른 소비유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수입이 감소하면 노인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며 여행 및 여가생활의 활용, 사회생활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지출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성규택·김근식, 1988). 즉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우선이며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전반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김창혁, 1987). 그러나 소득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 노화에 기인한 노인의 욕구변화를 반영하여 레저, 편의품, 건강용품, 주거비, 금융서비스비용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커진다(Moschis, 1987). 광우중(1987)은 노부부의 소비자행동특성으로서 새로운 지출은 장기여행, 자기수련활동, 주택개량, 취미용품, 귀중품의 구입을 들고 있고 홍향숙(1989)의 연구에서는 노부부의 소비생활문제로서 건강 및 의료비 문제와 여가선용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출범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적절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노인들은 여행, 쇼핑, 교제, 건강유지, 의복, 가구 등의 사치적인 범주에 지출할 여유가 있는 것이다(Miller, 1978). Miller(1978)는 노인이 원하는 것(the wanted)과 필요로 하는 것(the needed)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원하고 있는 것까지는 구입하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노인소비자의 소비지출문제는 소비욕구 소비욕구와 자원의 희소성이 상호 관련된 문제로서, 노인의 욕구와 함께 고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소비자는 다른 취약, 저소득층 소비자와 함께 다른 연령집단보다 소비자자만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이기춘, 1988). 소비자자만에 민감하고 시장참가수준이 일정할 때 희생되기 쉽지만, 자신의 권리나 불공정한 기업관행을 인지하지 못하며, 소비자불만이 생겨도 불만호소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Perloff·McCasky, 1978; Gilly·Zeithmal, 1985; Bernhardt, 1981). 또한 노인소비자는 어디에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소비자정보를 얻어야 할 지조차 모른다(Waddle, 1975; Burnhardt, 1981). 게다가 불리한 시장경험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금전 및 비용(분노, 좌절, 불편함, 시간, 근심 등)을 지불하게 되므로(Perloff et al, 1978)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Swagler (1979)에 따르면 소비자가 기본적인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시장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홍천용(1980)은 소비자피해의 원인을 소비자대중의 상품에 대한 무지와 공급자의 비양심적인 상업주의에 놓고 있는데 이것 또한 Swagler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Thorelli(1981)도 소득수준이 낮은 제3세계의 소비자시장은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구매자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위협도가 크다고 하였다(김경자, 1986). 이처럼 소비자문제의 원인은 소비자 개인적 특성과 시장환경요인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Andreasen, 1976; Swagler, 1979; 윤정혜, 1986 재인용). 소비자 개인특성에 따른 소비자문제는 빈곤, 고령,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한 소비자기능상의 저하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시장환경요인에 따른 소비자문제는 상점의 높은 관리비용과 부실관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시장구조문제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상거래 및 소비자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상인의 착취문제를 일컫는다(윤정혜, 1986).

## 2. 노인소비자문제 관련요인

노인소비자는 연령 또는 생활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연령 또는 생활주기상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빈곤, 정신·육체의 병고,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 무위에서 오는 무역할의 4가지 고애를 겪게 된다고 말하여지는 바와 같이 노인은 유아, 병자와 함께 전체 사회의 약자의 범주에 들어간다(서병숙, 1986). 이는 노인기에로의 전이가 퇴보적인 현상임에 기인하는데 구체적으로 노인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기에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며 운동능력이나 감각기능도 쇠퇴되어 간다.

둘째, 생활주기상 노년기로의 전이는 주로 노년기 역할 전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노인은 직업에서 은퇴하게 되고 역할이 축소됨과 동시에 활동범위 및 내용이 축소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가족내에서 생산의 주도적 역할을 하던 남자나 소비를 위주로 가정관리를 담당하던 여자가 노인이 되면 그 역할을 상실하기 마련이다(임미숙, 1985). '할 일이 없는 것'이 노후생활의 새로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상실의 문제는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된다(임미숙, 1985).

셋째,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경제사정의 악화일 것이다(장인협·최성재, 1987). 배우자 사망, 퇴직으로 인한 소득절감, 무수입의 상태에서 노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 빈곤임은 기존의 여러 실태조사에서 노인의 당면문제중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넷째, 노인의 부정적 상황 가운데의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이다. 사랑의 관계와 대인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인 배우자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남은 사람은 절망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

다섯째, 이와같은 노년기의 제 특성으로 말미암아 노인은 의존적 특성을 갖는다. Blenkner는 노인의 의존적 경향이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의 현상으로 보고, 노인의 의존성을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사회적 의존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와같은 의존성을 가진 노인에게 가장 의지의 장소가 되는 것은 가족이며 가족에 의한 부양은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Bernhardt(1981), Clark et al(1985)에 따르면 노인 집단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 실제로 다른 하위집단의 모임이라는 총체적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노인집단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교육수준,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소비자문제는 모든 노인에게

게 동일한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발생하지는 않는다. Burton & Hennon(1980)은 노인과 관련된 소비자문제는 비슷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노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노인소비자문제 관련요인으로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소득관련 변수로는 월평균 용돈액수, 소득안정성, 소득원천율, 노인의 의존적 특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주요 부양담당자인 가족관련변수로는 배우자유무, 가족형태, 가족결속을, 그리고 소비자문제와 노인기의 역할전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자역할수행 그리고 사회연구학적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을 선택하였다.

###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소비지출문제 및 시장구매문제의 노인소비자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문제의 노인소비자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소득 및 가족관련 변수, 소비자역할정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소비지출문제 및 시장구매문제의 노인소비자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4. 개념정의

**소비자문제:** 소비자가 자신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반적인 지출범주에 자원을 배분하고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서 구입, 사용하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소비지출문제와 시장에서 화폐의 비효율적 사용 및 소비자불만족과 관련된 시장구매문제를 포함하는 개념.

**소비지출문제:** 제한되고 불안정한 소득의 한도내에서 신체의 안정과 생존을 유지하고(기본욕구 충족) 또한 그 이상의 소비욕구(파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 식, 건강, 여가·취미, 기타 지출영역의 지출범주에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수준에 비하여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 생기는 불만족스런 혹은

불균형적인 상태.

**시장구매문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것을 사용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구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문제로서 심·신의 노화, 지식의 진부화로 인한 소비자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그리고 부당거래, 상인의 불친절, 노인에게 불리한 시장구조에 따른 취약한 시장환경으로 밀미암아 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소비자불만을 느끼는 상태.

**가족결속:** 노년기 부모와 성년기 자녀간의 심리적 유대관계로서 이들간의 의사소통, 왕래, 애정, 존중, 이해, 가치일치의 정도.

**소비자역할수행:**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소비자역할로서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획득자역할, 저축과 소비의 배분, 소비지출 비목별 배분과 관련된 자원의 배분자역할, 재화와 서비스의 합리적인 구매와 관련된 구매자역할,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의 역할을 행하는 정도.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적·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소비자역할수행 정도, 가족결속 정도,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의 소비자문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소비자역할수행척도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0점에서 28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역할수행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0.72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문제척도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이 가운데 기본욕구와 관련된 문항은 10개이고 파생욕구와 관련된 문항은 12개이다. 이 척도는 0점에서 44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지출문제수준이 높은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0.90이며 하위영역별로 기본육구와 관련된 문제 척도는 0.75, 파생육구와 관련된 문제 척도는 0.86으로 나타났다.

시장구매문제척도는 3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소비자기능과 관련된 문제 9문항, 시장환경과 관련된 문제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점에서 38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80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소비자기능과 관련된 문제척도가 0.64, 시장환경과 관련된 문제척도가 0.71로 나타났다.

가족결속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된 3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0점에서 16점까지의 점수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이 강한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79이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여자노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989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

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는데 278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응답자의 연령이 60세에 미달하거나 응답이 부실기제된 것을 제외하고 256부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소비자문제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빈도분포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소비자문제가 선정된 여러 변수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onway ANOVA, Scheffé-test를 실시하였고 분산분석이 동분산성의 가정은 Cochran's C값을 검증하였다. 노인소비자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백분율 (빈도)	변수	구분	백분율 (빈도)
연령	60세-64세	28.9 % (74)	소득의 원천	재산 소득	27.6 % (70)
	65세-69세	30.1 % (77)		자녀, 친척	55.9 % (142)
	70세-74세	25.4 % (65)		자신의 취업	11.0 % (28)
	75세 이상	15.6 % (40)		배우자의 취업	5.5 % (14)
	계	100.0 % (256)		계	100 % (254)
교육 수준	문맹	12.2 % (31)	가족 형태	아들부부와 동거	44.1 % (113)
	무학	24.2 % (62)		딸 부부와 동거	7.8 % (20)
	서당, 한서	2.7 % (7)		미혼자녀와 동거	10.5 % (27)
	국민학교	32.5 % (83)		노인핵가족	36.3 % (93)
	중고등학교	21.2 % (54)		계	100.0 % (256)
	대학이상	7.1 % (18)			
배우자 유무	있다	30.2 % (79)	월평균 용돈액	3만원 미만	25.0 % (64)
	없다	69.8 % (177)		3-5만원미만	20.2 % (52)
	계	100.0 % (256)		5-10만원미만	24.2 % (62)
소득의 안정성	안안정	65.6 % (168)		10-15만원미만	12.1 % (31)
	불안정	34.4 % (88)		15만원 이상	18.5 % (47)
	계	100.0 % (256)	계	100.0 % (256)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소비자문제의 수준

소비지출문제와 그 하위영역인 기본육구 및 파생육구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는 중간점을 밑도는 수준이다. 두 하위 영역별 문제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본 결과, 파생육구와 관련된 문제의 수준(0.94)이 기본육구와 관련된 문제의 수준(0.67)보다 높다. 소비지출범주별로 보면 식생활영역은 0.85, 의생활영역은 0.44, 건강생활영역은 1.08, 여가 및 취미생활영역은 1.06, 기타지출영역은 0.77로서 이 가운데 건강생활과 여가·취미생활 영역은 중간점인 1점을 상회하고 있어 비교적 문제의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구매문제와 그 하위영역인 소비자기능과 시장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중간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시장환경과 관련된 문제의 수준(1.19)이 소비자기능(1.16)과 관련된 문제의 수준보다 높다.

#### 2. 소비자문제 관련변수의 분석

##### 1) 소비자역할수행에 따른 소비자문제

소비자역할수행정도에 따라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 문제는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하위와 중위집

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이 두 집단과 상위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소비자역할수행 정도가 높은 집단이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의 소비자문제 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시장구매문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역할수행점수가 중간인 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문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2) 가족관련 변수에 따른 소비자문제

가족결속에 따라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는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결속의 약한 집단의 문제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소비지출문제는 중위·하위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 두 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차이만 의미있게 나타났다. 시장구매문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유무에 따라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문제수준이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노인가족형태를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집단,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집단, 노인핵가족으로 구분하여 집단간 소비자문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2〉 소비자문제의 수준

	소비지출문제						시장구매문제					
	기본육구문제		파생육구문제		소비자기능문제		시장환경문제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하위집단	0-8	20.3(52)	0-3	26.2(67)	0-4	16.4(42)	0-7	01.6( 4)	0-3	09.8(25)	0-4	-2.7( 7)
중하위집단	9-17	32.4(83)	4-7	37.5(96)	5-9	27.3(70)	8-15	17.6(45)	4-6	11.7(30)	5-8	14.8(38)
중위집단	8-26	25.8(66)	8-12	25.8(66)	10-14	23.4(60)	16-23	32.4(83)	7-10	36.7(94)	9-13	31.3(80)
중상위집단	27-35	16.4(42)	13-16	08.6(22)	15-19	17.2(44)	24-31	38.7(99)	11-13	32.0(82)	14-18	40.2(103)
상위집단	36-44	05.1(13)	17-20	02.0( 5)	20-24	15.6(40)	32-38	09.8(25)	14-16	09.8(25)	19-22	10.9(28)
계		100.0 (256)		100.0 (256)		100.0 (256)		100.0 (256)		100.0 (256)		100.0 (256)
평균		18.02		6.70(0.67)*		11.32(0.94)*		22.37		0.28(1.16)*		13.10(1.19)*
표준편차		10.32		4.29		6.48		7.14		3.62		4.55

\*문항수로 조정한 수치

변수	집 단 · 빈 도		소비지출문제		시장구매문제	
			평 균	scheffé-test	평 균	scheffé-test
소비지역할 수행 N=256	하( 0- 9)	72	21.60	a	21.20	a
	중(10-16)	103	20.14	a	23.92	a
	상(17-28)	81	12.22	b	19.43	b
	F 값		22.51**		10.94**	
가족결속 N=256	하( 0- 7)	86	23.99	a	26.65	a
	중( 8-11)	88	15.01	b	21.60	b
	상(12-16)	82	14.10	b	18.74	c
	F 값		26.57**		33.08	
배우자유무 N=256	있 다	79	14.46		20.62	
	없 다	177	19.64		23.17	
	F 값		-3.81**		-2.66**	
월평균 용돈액수 N=256	3만원	64	26.94	a	25.34	a
	3-10만원	114	18.12	b	23.04	a
	10만원이상	78	10.63	c	19.00	b
	F 값		66.37**		10.45**	
소득원천 N=254	재산소득	70	13.99	a	21.20	
	자녀친척	142	19.99	b	23.06	
	본인취업	28	22.82	b	24.36	
	남편취업	14	08.50	a	17.36	
	F 값		12.94**			
소득안정성 N=256	안 정	168	15.09		21.35	
	불 안 정	88	23.68		24.36	
	T 값		-6.88**		-3.51**	
교육수준 N=255	무 학	93	24.32	a	24.81	a
	서당 .국교	90	16.90	b	22.93	a
	중고이상	72	11.38	c	18.54	b
	F 값		43.59**		18.05**	

\*\*p<.05 \*\*p<.01

### 3) 소득관련변수에 따른 소비자문제

첫째, 월평균용돈액수에 따라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소비지출문제는 하위, 중위, 상위의 세 집단간 각각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구매문제는 하위, 중위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 두 집단과 상위 집단간의 차이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원천을 재산소득, 자녀·친척, 본인의 취업, 배우자의 취업으로 구분하여 소비자문제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소득원천에 따라 소비지출문제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é-test 결과, 소득원천이 재산인 집단과

배우자 취업인 집단, 그리고 자녀·친척인 집단과 본인의 취업인 집단간에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원천별 시장구매문제의 수준은 Cochran's C값으로 동분산성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각 집단의 분산이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t-test를 반복하여 개별분산추정량(seperate variance estimate)으로 검증한 결과 소득원천이 자녀·친척인 집단과 배우자취업 집단, 본인취업집단과 배우자취업집단 사이에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소비자의 소득이 규칙적인지 여부에 따른 소비자문제 수준을 보면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 모두 소득이 불안정한 집단이 안정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p<.01).

4)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소비자문제

노인소비자의 교육수준을 무학, 서당·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교육수준별 소비자문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scheffé-test 결과는 소비지출문제에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각각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구매문제는 중고등학교 이상인 집단과 그 이하인 집단간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소비자문제의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소비자문제를 살펴보면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3. 노인소비자문제의 관련요인과 독립적인 영향력

소비지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를 포함한 노인소비자문제의 관련요인과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교육수준, 월평균용돈액수, 가족결속 및 소비자역할수행은 연속변수로서 breakdown을 통하여 선형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p<.01수준에서 선형관계가 유의하므로 회귀가정을 만족시킨다. 교육수준, 가족결속, 소비자역할수행은 응답자의 점수를 그대로 회귀

모형에 적용하였고 월평균용돈액수는 문항응답범주의 중앙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배우자유무와 소득안정성은 불연속변수로서 2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각을 가변수로 전환하여 적용하였고, 소득원천은 불연속변수로서 4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3개의 가변수로 전환하였다.

먼저 소비지출문제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수준, 월평균용돈액수, 소득원천, 소득의 안정성, 가족결속, 배우자유무, 소비자역할수행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차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소득원천과 관련된 3개의 가변수와 소비자역할수행, 배우자유무의 회귀계수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이를 제외한 4개의 변수로 최종적인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고, 분석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Y=b_0+b_1X_1+b_2X_2+b_3X_3+b_4D_4+e$$

(Y:소비지출문제, X<sub>1</sub>:월평균용돈액수, X<sub>2</sub>:가족결속, X<sub>3</sub>:교육수준, D<sub>4</sub>:소득안정성(안정=1, 불안정=0), b<sub>0</sub>:상수, b<sub>1</sub>…… b<sub>4</sub>:회귀계수, e:오차)

회귀방정식의 4개의 독립변수가 소비지출문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중심으로 살펴보면(표 4), 가족결속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β=-.293), 다음으로 용돈액수(β=-.288), 교육수준(β=-.282), 소득안정성(β=-.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소비자문제 회귀분석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회귀계수(b)	표준화된 회귀계수(β)	
소비지출문제	용돈액수	-.324**	-.288	.329
	교육수준	-1.914**	-.282	.424
	가족결속	-.709**	-.293	.498
	소득안정성	-1.318*	-.106	.506
	상수	33.267		
	R <sup>2</sup>	506		
시장구매문제	가족결속	-.709*	-.404	.257
	용돈액수	-.677**	-.202	.319
	교육수준	-.612**	-.130	.331
	상상수	32.204		
	R <sup>2</sup>	331		

N=255 \*\*p<.01 \*p<.05

소비지출문제의 수준은 가족결속이 약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용돈액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한 집단이 높으며, 이 4개의 변수는 소비지출문제의 분산을 50.6% 설명해 준다.

또한 시장구매문제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족결속, 소비자역할수행, 월평균용돈액수, 소득안정성,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소득원천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차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소득원천의 3개 가변수와 소비자역할수행, 소득안정성, 배우자유무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 변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변수로 최종적인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Y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 e$$

(Y: 시장구매문제, X<sub>1</sub>: 월평균용돈액수, X<sub>2</sub>: 가족결속, X<sub>3</sub>: 교육수준, b<sub>0</sub>: 상수, b<sub>1</sub> …… b<sub>3</sub>: 회귀계수, e: 오차)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장구매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가족결속으로 나타났고 ( $\beta = -.404$ ) 그 다음으로 용돈액수 ( $\beta = -.202$ ), 교육수준 ( $\beta = -.130$ )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구매문제는 가족결속이 약할수록, 용돈액수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3변수의 설명력은 33.1%이다.

## V.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지출문제는 중간점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파생욕구문제의 수준이 기본욕구 문제의 수준보다 높다. 소비지출문제는 소비자역할수행, 가족결속, 배우자유무, 월평균용돈액수, 소득안정성, 소득원천,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지출문제에 유의하게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결속, 용돈액수, 소득안정성, 교육수준이며 이 네 변수의 설명력은 50.6%이고 이 가운데 가족결속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시장구매문제는 중간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시장환경문제 수준이 소비자기능문제의 수준보다 높다. 시장구매문제는 소비자역할수행, 가족결

속, 배우자유무, 용돈액수, 소득안정성,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시장구매문제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결속, 용돈액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세 변수의 설명력은 33.1%이며 가족결속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노인소비자에게는 전반적으로 생존유지와 사회적·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구매문제를 호소하는 노인이 많다.

둘째, 교육수준, 연령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이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의 소비자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는 노인의 소비자문제는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형태, 가족결속, 배우자유무의 가족관련 변수 가운데 가족형태가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의 소비자문제의 관련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반면 가족결속은 본 연구에서 알아보려 했던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의 소비자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녀에 대한 강한 경제적, 심리적 의존성이 소비생활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가의 외관적 형식보다는 노부모와 자녀간의 심리적 유대관계가 노인의 생활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거주와는 상관없이 노인에게 대한 자녀의 경제적, 심리적 부양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택한 소비자역할수행 변수는 소비지출 및 시장구매의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영향력있는 변수는 아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소비자문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교육수준과 용돈액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각각  $r = .48$ ,  $r = .52$ )를 나타내고 있고 가족결속과도 약하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 $r = .14$ )가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은 용돈액수를 통제하여 보았을 때

소비자역할수행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중간집단보다 소비자문제의 수준이 오히려 낮아서 선행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자발적인 것인지, 상황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비자역할을 하지않은 노인은 어느 정도 행하는 노인에 비하여 소비자문제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역할수행 수준이 상위집단에서 하위, 중위집단보다 문제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위집단이 중위집단보다 문제의 수준이 낮은 것은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머지않아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계층을 형성하리라 예상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를 소비자출문제와 시장구매문제의 두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광범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문제를 소비자문제에 포함시켜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지 않다. 각각의 소비자문제에 대하여 보다 정교하고 깊이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소비자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로 본 가족결속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관련변수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가족형태와는 관계없이 가족결속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째, 본 연구에서 노인소비자에 대하여 획득자, 배분자, 구매자, 사용자의 성인소비자역할 개념을 적용해본 결과 용돈액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때 소비자기능과 관련된 구매문제에서만 선형성을 보이고 소비자출문제 및 시장환경관련 구매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비선형관계를 나타내므로써 노인소비자는 이와같은 역할에서 은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노인소비자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비자역할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박우종(1987), 가정생활주기에 의한 시장세분화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2) 계선자(1987), 도시주부가 인지한 소비자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권 1호, pp.85-91.
- 3) 김정자(1986), 소득계층별 비교를 통한 저소득층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4) 김성숙(1989), 도시저소득층의 소비자문제 지각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5) 김창혁(1987), 산업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6) 성규택·김근식(1988), 노인들의 안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집, pp.69-87.
- 7) 성지미·문숙재(1988), 저소득층의 소비자기능과 소비자문제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권 1호, pp.51-67.
- 8) 서병숙(1982), 부모 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6집, pp.101-119.
- 9) 서정희·이기춘(1988), 소비자능력과 소비자역할수행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 10) 윤정혜(1986), 도시저소득층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pp.67-87.
- 11) 이기춘(1988), 소비자교육학, 교문사, pp.200-207.
- 12) 이영하(1975), 한국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범대학논문집 3, pp.199-220.
- 13) 임미숙(1985), 도시노인의 노인정 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14) 임종권(1986),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사회보장,

- 사회보장연구 2, 한국사회보장학회. pp.161-181.
- 15) 장인협·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42-153.
  - 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의식구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17)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76), 노인세대(결손가정) 조사연구보고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8) 홍천용(1980),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연구-특히 제조물책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19) 홍향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20) Adreassen, A.R.(1976), The Differing Nature of Consumerism in Gett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0, no.2, pp.179-190.
  - 21) Burnhardt K.L.(1981), Consumer Problems and Complaint Actions of Older Americans:A National View, Journal of Retailing vol.57-3, pp.107-123.
  - 22) Burton J.R., Hennon C.B.(1980), Consumer Concerns of Senior Citizen Center Participa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14-2 pp. 366-382(1981), Consumer Educ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3, pp. 24-28.
  - 23) Clark R.L., Summer D.A.(1985), Inflation and Real Income of the Elderly:Recent Evidence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The Gerontologist vol.25-2.
  - 24) Drayton J.R., Tynan A.C.(1988), The Neglect of the Older Consumer, Journal of the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2.
  - 25) Fareed A.E., Riggs G.d., Old-Young Differences in Consumer Expenditure Parttern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6-1, 1982, pp.159-171.
  - 26) Gilly M.C., Zeithaml V.A.(1985), The Elderly Consumer and Adaption of Technolog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pp.353-362.
  - 27) Lumpkin J.R.(1984) The Effect of the Retirement versu Age on the Shopping Orientations of the Older Consumer, the Gerontologist vol.24-6, pp. 622-627.
  - 28) Mason J.B., Bearden W.O.(1979), Satisfaction / Dissatisfaction with Food Shopping among Elderly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3-2, pp. 359-369.
  - 29) Miller N.H.(1978),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Attitudes of Elderly,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Madison.
  - 30) Moschis G.P.(1987), Consumer Socialization, D. C.Health and Company / Lexington, pp.193-209.
  - 31) Peroff R., McCaskey P.(1978), Non-Monetary Costs Associated with Consumer Fraud and Dissatisfaction of the Elderly, American Council on Consume Interest 24th Annual Conferance, pp. 136-161.
  - 32) Schnapper, E.(1967), Consumer Legislation and the Poor, in Asker, D.H.and Day, G.S.(ed), Consumerism:search for consumer interest, 2nd ed., N.Y.:The Free Press pp.83-93.
  - 33) Swagler R.M.(1979), Consumer and Market, D. C.Health and Company, Lexington, pp.298-300.
  - 34) Thorelli, H.B.(1981), Consumer Policy for the Third World,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5, pp.197-211.
  - 35) Waddle F.E.(1975), Consumer Research and Programs for the Eldrel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9, pp.164-175.